



금인의 서원 미황사(美黃寺) 석양에 물든 바다보며, 아득한 꿈을 꾸다

바다는 석양에 물들고 부처님은 아득한 꿈을 꾸다.

봄엔 붉은 등백꽃이 좋았던 땅 끝 도량 미황사. 계절이 계절을 보내고 도량에는 코스모스가 피었다. 땅 끝으로 밀려온 더운 바람이 꽃잎을 스쳐 가을바람이 되고, 사연 많은 달마산 기슭에는 단청도 없이 고운 대웅보전에 금빛 햇살이 젖고 있다.

그 옛날, 돌로 만든 배 한 척이 달마산 아래 포구에 닿고, 의조 스님은 그날 밤 꿈을 꾸다. 배를 타고 온 금인(金人)은 신교 온 불상과 경전을 모셔 달라며 검은 돌에서 나온 소를 따라 가라한다. 그리고 금인의 말대로 스님은 소가 누운 자리에 짚을 짓는다. 그 소의 울음소리가 아름다워 '美' 자를 쓰고 금인의 색깔에서 '黃' 자를 따왔다. 미황사다.

후원에서 밤 냄새가 피어오른다. 후원을 지나 오솔길을 걸으니 부도암이다. 부도전 풀밭에는 푸르던 강아지풀이 가을빛을 머금고, 이끼 낀 부도에는 삶의 끝이 가져다준 깨달음의 이름들이 가을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어느 날 홀연히 동쪽으로 간 달마 스님의 부도도 여기 어디쯤일까.

만세루 너머로 석양이 번진다. 법당 앞을 지나면 확인 스님이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법당의 부처님은 석양에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아득한 꿈을 꾸다. 금인이 노를 젓고 들배 하나가 떠나간다. 눈부신 바다 위로 소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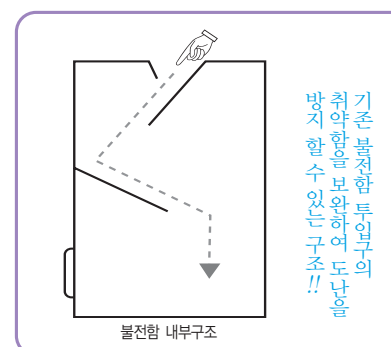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로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 이내)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 사무용)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미안산 탈사, 부산 금정사의 계룡사, 보광사, 범성사, 해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 350



◆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 95



BY630 사무가정용 [중형 100KG] 외부 630×500×3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형 120KG] 외부 670×500×3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형 140KG] 외부 750×520×3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형 180KG] 외부 860×560×310 내부 660×460×340

범양금고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리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동협 221103-52-056910 (강순집)
기업 485-005940-01-017 (강순집)